

우리말 우리글이 바로 서는 국어교육의 새 길을 여는 사람들!



전국국어교사모임

수신자 전국 중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자율연수 참여 협조 요청

1.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 독서교육분과 소모임 ‘물꼬방’이 주최하는 아래의 자율연수에 귀교의 선생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가. 연수 과정명: 교사가 지치지 않는 독서교육
- 나. 일시: 2016년 7월 22일 ~ 24일(2박 3일)
- 다. 장소: 수원 선경도서관
- 라. 연수종별: 자율연수
- 마. 이수시간: 18시간
- 바. 연수비 : 17만원(정회원 15만원)
- 사. 주최: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

붙임: 연수 안내문 1부. 끝.

(사)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



기안자 강훈

사무총장

박상규

이사장 조장희

협조자

시행 전국모 2016-13

(2016. 06. 02.)

접수

(2016. .)

우 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A동 1702호 / <http://www.naramal.or.kr>

전화 (02) 744-3426 전송 (02) 2269-3428 / E-mail uri-mal@hanmail.net

/ 공개

2016 물꼬방 여름연수 <교사가 지치지 않는 독서교육>

안녕하세요? ‘누구나 부담없이 시작하는 독서수업’, ‘교사가 지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독서교육’을 목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번 씩 모여 서로 삶과 수업을 나누고 있는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원에서 책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베풀 만드는 2박 3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전국 무림 속 선생님들께서 실천하신 독서교육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금세 친해지고 좋은 기운도 주고받으실 거예요. 수원 여행과 독서교육 연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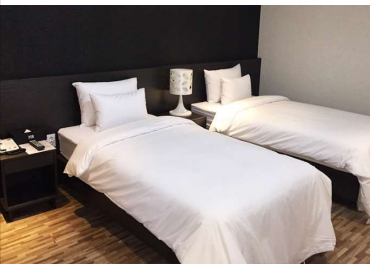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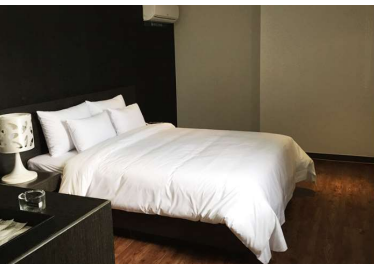
책을 통해 아이들과 만나고 싶으신 분, 듣기만 하는 연수보다 참여하는 연수를 즐기시는 분, 대규 모 강의보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 소박하게 나만의 독서교육을 지치지 않으며 꾸려나가고 싶으신 분, 그동안 해 온 독서교육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연수 도우미 대표 : 전성운 (☎010-9346-0777), 송동철 (☎010-2272-0818), 박신애 (☎010-4587-8491)

● **때** : 2016년 7월 22(금)~ 7월 24일(일) - 2박 3일

● **곳** : 수원 호텔 도노/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행궁동 및 북수동 일대

● **머무는 곳**

수원 화성			
행궁동 마을			
호텔 도노			

	7월 22일(금)	7월 23일(토)	7월 24일(일)
아침밥 (07:00-09:00)			
오전1 (09:00-10:30)		햇살강의1 -강사 : 반별 강사 -진행 : 반별 담임 -장소 : 반별 숙소	전체강의 (10:00 - 11:30) -강사 : 박유미 -장소 : 행궁동 주민센터
오전2 (10:45-12:15)		햇살강의2 -강사 : 반별 강사 -진행 : 반별 담임 -장소 : 반별 숙소	연수 돌아보기 (11:30 - 12:15) -사진영상 보기 -강사와의 대화 -장소 : 행궁동 주민센터
점심밥 (12:15-14:15)			
오후1 (14:15-15:00)		낮잠 (14:15 - 15:30)	
오후2 (14:00-17:00)	초청강의 (14:00 - 17:00) -강사 : 김애란 (소설가) -장소 : 수원 신경도서관 강당	마실강의 (15:30 - 17:00) -강사 : 반별 강사 -진행 : 반별 담임 -장소 : 찻집	
저녁밥 (17:00-19:00)	연수 접수/ 방 배정 -진행 : 전성운, 송동철 -장소 : 호텔 도노		
저녁1 (19:00-21:00)	모둠별 책 나눔의 시간 -주제 : 모둠 선생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독서교육 경험을 나누며, 고민을 해결해요. -장소 : 숙소 또는 찻집	별빛강의 (19:00 - 20:30) -강사 : 반별 강사 -진행 : 반별 담임 -장소 : 숙소 또는 정자	
저녁2 (21:00-22:00)		방과후 (20:30 - 22:00) -주제 : 나의 독서교육 계획 -진행 : 반별 담임 -장소 : 숙소 또는 찻집	
밤 (22:00-24:00)	술 한 잔 기운 한 잔		

★ 강의 안내

★ **전체 강의** : 2016 물꼬방 여름연수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초청 강의 - 강사: 김애란 소설가/ 장소: 선경도서관 강당

·이별 강의 - 강사: 교사 박유미 / 장소: 행궁동 주민센터

★ **모듬별 책 나눔의 시간**: 첫날 저녁, 모듬별 책 나눔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물꼬방 강의를 들으러 오신 모듬 선생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독서 교육 경험을 이야기하며,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꼬방에 오시는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선물하고 싶은 책을 꼭 준비해 주세요.**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햇살강의, 마실강의, 별빛강의**: 둘째 날 강의는 반별로 진행합니다. 반을 선택하면, 하루 동안 한 명의 담임선생님과 10명의 수강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햇살강의**는 1시간 30분씩 두 분의 강사와, **마실강의** 역시 1시간 30분동안 한 분의 강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빛강의**는 1시간 30분 동안 시원한 여름 저녁에 한분의 강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기자기한 행궁동 마을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야기 나눔 장소로 수원 화성의 시원한 정자도 추천합니다.

	담임 선생님	햇살강의 1 09:00-10:30	햇살강의 2 10:45-12:15	마실강의 15:30-17:00	별빛강의 19:00-20:30	비고
1반 (10명)	박정인	시 읽고 시 쓰기 -박신애	중학교에서 한권읽기와 서평쓰기 -김은희	교과서 없는 듯, 있는 듯 독서 수업하기 -김인덕	네 시간 독서토론 방법 -송승훈	독서교육을 시작하는 샘들에게 추천해요.
2반 (10명)	최해실	고등학교에서 시집으로 수업하기 -수행평가와 연계 -최지혜	질문으로 소설 읽기 -하고운	교사의 욕심이 담긴, 과정형 수행평가 꾸러가기 -신미옥	독서를 중심으로 1년 꾸러가기 -송수진	독서교육을 시작하는 샘들에게 추천해요.
3반 (10명)	이정미	치유와 성찰에 이르는, 시집 들고 수업하기 -한창호	책 대화하기 -송승훈	교과서 없이 문학 수업하기 -이상용	책과 함께 자유학기제를 -구본희	독서교육 경험이 있는 샘들에게 추천해요.
4반 (10명)	김건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토론 동아리 꾸리기 -김수란	동료들과 책 읽고 수다 나누기 -박혜숙	물꼬방 인터뷰 프로젝트: 김병섭 -김영희	교사는 즐겁게 쉬고 학생들은 즐겁게(?) 몰입하는 고등학교 수업기획 3가지 -김병섭	독서교육 경험이 있는 샘들에게 추천해요.
5반 (10명)	양수정	책과 함께 자유학기제를 -구본희	독서를 중심으로 1년 꾸러가기 -송수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토론 동아리 꾸리기 -김수란	중학교에서 한권읽기와 서평쓰기 -김은희	중학교 샘들에게 추천해요.
6반 (10명)	최윤정	교과서 없이 문학 수업하기 -이상용	교사는 즐겁게 쉬고 학생들은 즐겁게(?) 몰입하는 고등학교 수업기획 3가지 -김병섭	치유와 성찰에 이르는, 시집 들고 수업하기 -한창호	질문으로 소설 읽기 -하고운	고등학교 샘들에게 추천해요.

★ **방과후** : 둘째 날 밤, 같은 반 선생님들과 ‘소박하지만 알찬 나의 독서 수업기획’을 만들어봅니다. 이번 연수를 들으며 마음 먹은, 자신이 실천하고픈 독서수업을 기획해 봅니다. 반 안에서 발표/조언/문제 상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어서 서로의 생각을 돌우며 술 한 잔을 나누며 맑은 기운을 채워보세요.

강의 소개

● 초청 강의

✎ 소설가 김애란

국어교사가 사랑하는 김애란 작가의 강의로 시작되는 물꼬방 여름연수!
첫날 첫 강의이니, 지각하시면 많이 아쉬울 거예요.

● 전체 강의

✎ 박유미, 새내기 교사도 성공하는 물꼬방표 독서교육

처음 물꼬방표 독서교육을 접하고 ‘나도 이런 멋진 수업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불탔습니다. 물론 그 후 뒤따르는 생각은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물꼬방 자료집을 보물처럼 아끼고 팬심으로 물꼬방 선생님들을 따랐더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 진행한 수업에서 저는 자주 황홀감을 느낍니다. 신참 교사의 물꼬방표 독서교육, 책 대화/ 시집 수업/ 진로 독서의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 반별 강의

✎ 최지혜, 고등학교에서 시집으로 수업하기- 수행평가와의 연계

수행평가로 3주 동안 시 경험 쓰기, 시 영상 만들기, 시 공부를 이어서 해보았습니다. 기존 물꼬방 선생님들 강의를 바탕으로 한 시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천해본 물꼬방 시 수업 경험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어 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 구본희, 책과 함께 자유학기제를

자유학기제 동안 했던 융합수업을 포함한 프로젝트 수업과 책읽기와 함께한 체험학습, 봉사활동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책을 넘어설 수도 있어야겠죠!

✎ 송수진, 독서를 중심으로 1년 꾸러가기

독서를 중심으로 중학교 교실에서 1년 동안 진행했던 학급 운영과 국어 수업을 보여드립니다. 학생들은 2권의 책을 사서 국어 수업 시작 전에 10분씩 꾸준히 읽고 한 줄 느낌 쓰기를 합니다. 1학기에 모듬끼리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2학기에 개인별로 읽은 책으로 서평을 씁니다. 교사로서 힘들 때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물꼬방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이상용, 교과서 없이 문학수업하기

‘내 맘대로 수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이 현실이 된지 몇 년 켜입니다. 힘은 들지만 나오고 싶진 않은 황홀한 감옥이네요. ‘나다운 수업’을 찾아 가는 분들에게 힌트가 될까 싶어서 시행착오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 박신애, 시 읽고 시 쓰기

일주일에 한 시간, 한 학기동안 가늘게 시 수업을 이어가 보았습니다. 중간고사 전에는 아이들과 시를 낭송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생활시로 써 보았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시집을 읽고 시경험 쓰기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시를 통해 함께 웃기도, 눈물 흘리기도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송승훈, 네 시간 독서토론 방법 / 책 대화하기

교과 수업시간에 쉽게 하는 독서토론 방법을 소개합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책을 읽고 대화하는 활동입니다.

✧ 김인덕, 교과서 없는 듯, 있는 듯 독서 수업하기

고등학교 문학, 고전,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서운하지 않게 다루면서 책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과욕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각종 웃픈 실패담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 김은희, 중학교에서 한권읽기와 서평쓰기

중학교에서 한권읽기와 서평쓰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 한권을 모두 친구들과 읽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작업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 한창호, 치유와 성찰에 이르는, 시집 들고 수업하기

수업시간에 시집을 들고 수업을 합니다. 무려(!) 남고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남고생도 이 수업을 좋아합니다. 시집을 만지작거리며 시와 친해지고, 교과서 밖의 시들을 만나 시를 새롭게 느끼며 알아가고, 더 나아가 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경험과 맞닿은 시를 골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씁니다. 삶의 단순 경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돌보고 보살피는 글,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글로 치유와 성찰에 이르는 시수업을 지향합니다.

✧ 김영희, 물교방 인터뷰 프로젝트: 김병섭

교육과 수업을 주제로 김병섭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수생 선생님들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려구요. 인터뷰에서 언급된 김병섭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올해 수업에 녹아내보려 발버둥친 저의 경험도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이름하야 ‘김병섭론’인데요, 하하.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김병섭 선생님과 류원정 선생님을 만나며 인터뷰 방식이 교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인터뷰’의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 이 방식을 나도 적용해보리라 마음을 먹게 하는 숨겨진 의도도 갖고 있는 강의랍니다:-)

✧ 김병섭, 교사는 즐겁게 쉬고 학생들은 즐겁게(?) 몰입하는 고등학교 수업기획 3가지 - 60살 인터뷰/독서대화보고서/ 거꾸로 문법 수업

교사가 즐겁게 쉬는 듯이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수업 기획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녀공학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60살을 상상하게 하고 그를 인터뷰하는 수업, 모둠별로 같은 책을 읽고 질문과 답을 만들고 기록하게 하는 수업, 마인드맵과 질문게임을 통해 문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한 수업. 1개는 실패했고 2개는 성공했습니다. 그게 뭐냐구요? 강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알려드려요^^

✧ 신미옥, 교사의 욕심이 담긴, 과정형 수행평가 꾸러가기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삼 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꾸려왔던 과정형 수행평가를 나눕니다. 작년에는 다운고 1학년 학생들과 집중적으로 탈핵 문제를, 지금은 그 연장선에서 2학년 인문사회집중과정의 학생들과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삼아 일 년 과정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인 제 욕심이 늘 앞섰다는 느낌이 지울 수 없는데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날 날이 이제 많아야 칠팔년 남았어요, 그래서 더 제 욕심이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늘 힘들어합니다.

✧ 박혜숙, 동료들과 책 읽고 수다 나누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책을 인연으로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동료 교사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만들어 나간 이야기로 나누고 싶습니다.

✧ 김수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토론 동아리 꾸리기

자유학기 동아리, 학생자율동아리, 방과후학교 독서토론반 등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하는 독서수업입니다. 아이들을 모집하고, 책과 아이들의 삶을 연결하고, 마침내 성장 공동체가 되는 독서토론, 찬반토론, 문학기행 수업이에요. 소 같던 아이들과 교사가 책과 함께 자라는 9년의 동아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하고운, 질문으로 소설 읽기

학생들과 함께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고 다같이 그 질문에 답해보는 과정에서 소설을 더 깊이 읽고, 우리와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지, 소설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1. 전국국어교사모임 접속 - <http://www.naramal.or.kr>
2. 연수행사 → 진행 중 연수행사 → <물꼬방-교사가 지치지 않는 독서교육>선택
3. 1~6반 중에서 강좌 선택하기 -> [수강신청]
4. [결제하기] 클릭(누리집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통장에 입금하기
<국민은행 721802-01-441178 박신애> (자료회원, 일반회원 17만원 / 정회원 15만원)
통장 입금 하실 때 입금자 이름은 <한국고 홍길동>처럼 해주세요.
→ 비숙박인 경우에도 연수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수 취소 시, 연수 시작 15일 전 7월 7일(목)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 7월 8일(금)부터는 연수비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너그러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율연수 참여협조 공문>은 추후 안내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수이수증>과 <연수비 영수증>은 연수 마지막 날, 이별 강의 시간에 나누어 드립니다.

! 주관 : 전국국어교사모임-독서모임 <물꼬방> <http://reading.naramal.or.kr>

! 참가 대상 : 국어교사 누구나 환영

! 연수 진행문의 : 전성운 (☎010-9346-0777), 송동철 (☎010-2272-0818)